

사회복지시설 탐방 32 생수의 집 이사장 김경식

중증장애 이해와 지역경제발전 기틀 마련



생수의 집은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들과 희망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설로 내년 1월 1일 정식 개원하게 된다. (원인: 김경식 목사)

“생수의 집은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들과 희망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설입니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 자락에 위치한 포천 임마누엘 중증 요양시설 ‘생수의 집’은 내년 1월 1일 정식개원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 준공식을 개최, 오는 12월 25일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게 된다.

생수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재활원이 설치·운영하게 될 6번째 시설로 이사장에 김경식(50) 목사가 재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체장애1급(소아비비)으로, 1983년 장애인 10명과 함께 임마누엘의 집을 설립 1993년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재활원 인가 1998년 장애인 노숙자 ‘희망의 집’ 개원 2000년 서울 송파구 임마누엘 보호작업시설 개원 2003년 금천구 어린이집 보육 수탁 2003년 강원도 인제 중증요양시설 개원 2004년 포천시 고통관리센터를 주간보호시설 수탁에 이어 현재 생수의 집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포천에 중증요양 시설을 설립한다는 지난해 고통관리센터를 수탁 등 포천시의외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3년간 강원도 인제에 설치·운영중인 중증장애인시설을 개원하면서 부터다.

김 이사장은 “56명 정원으로 입소자를 모집하는데 1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다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턱없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서울 인근 몇몇 곳을 물색하다 포천에 시설건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6일만에 포천에 중증요양시설을 개원해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감동스럽다”고 덧붙였다.

생수의 집은 연면적 1,692.24㎡(511.3평)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3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국시비 9억8천400만원과 자부담 6억7천600만원 등 총 1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17일 준공했다.

김 이사장은 시설이 준공된 만큼 앞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개원에 앞서 오는 12월 3일까지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생수의 집에는 56명의 중증장애인이 입소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직원은 50여명이다.

김 이사장은 “전문직의 경우 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외부 인력을 채용하게 되겠지만, 장애인 케어와 운전직, 청소직, 시설관리직 등은 관내인력을 최대한 채용할 계획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된 직원은 사회복지공무원 9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입소는 실비 입소와 무료입소로 나뉘는데, 생수의 집은 20만원의 실비를 받고 10여명이 입소하게 되며, 나머지는 인원은 국지지원의 형식으로 무료입소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이 부족한 만큼 시설입소문제를 가장 신중히 고려했다”며 “이번에도 1천5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중 형평성을 고려 실비 입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수의 집이 받는 실비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활용된다.

시설 운영 비용 전액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부담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일년동안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15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전액 송파구청이 부담하게 된다”며 “포천시에 생수의 집이 위치함으로써 지역엔 고용창출 및 인구 증가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식 개원을 앞둔 생수의 집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용품이다. 일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이뤄지는 자원봉사이다. 목욕, 식사, 빨래 등 각종 봉사가 필요하지만 특히,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머리를 깎아 줄 이·마용봉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의 집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후원 : 1005-200-973909(예금주: 임마누엘재활원)
문의 : 031-535-3662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수능이 끝난 이즈음



석혜승
본문정사 주지

며칠 전 수능이 끝나고 이제 는 발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필연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심정은 애간장이 끊으리라 생각된다. 산다는 것이 경쟁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하는데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어쩌면 수험생을 둔 부모의 입장이 더 더욱 애가 끊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쟁사회에서 나오되거나 뒤쳐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 없이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만큼은 수능이라는 인생의 한 고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대체 자식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부모의 애를 끊이는 것일까?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원인으로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문득 문득 자식이 뭐길래...하는 원초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굳이 자식이란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듯 자식의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 한다. 자식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속명적인 존재이다. 자식의 일희일비(一喜一悲)가 그대로 부모의 일희일비(一喜一悲)가 되지 않던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사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 권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능이 끝난 이즈음 물론 수능의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수능의 결과 보다 더 중요한 자식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의 고해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명선은 그 무엇보다 사람이 더욱 유용하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참 봉사의 의미

며칠 전 예정대로 포천시 신음동에 자리하고 있는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 (구 마리아의집, 1.2층은 생활수급자요양원 3층은 임종예가전문요양원 호스피스 병동, 여성에 한해서 75세 이상만 수용가능) 빨래봉사에 나섰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 고문

되었는데, 게다가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손 빨래하고 할수기만 사용하는데 설명을 들으며 가슴속에서부터 그들이 존경스러워지고 부너회에서 여성에 한해서 75세 이상만 수용가능) 빨래봉사에 나섰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소홀음 각 리부너회들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매달 한번 이곳에 와 빨래를 해드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이고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빠짐없이 연초 계획대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물 다섯 분이 벗어는 숙수서부터 부버 으며 왈글라 달글라 하고 기쁘게 빨래봉사를 했다. 단체인들 시에 나왔다.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 총무

‘열심히 살자’ 좌우명 삼아 노력

글쓰기 매력 느끼고 다양한 글쓰기 시도할 계획

“은미의 젋소 사랑이야기”의 10회 연재를 마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40·사진·가산면 금현리) 총무를 만났다.

가족들과 동남아여행을 하러 왔던 날 만난 이 총무는 “글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라며 “은미의 젋소사랑이야기 10회 연재동안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서 남편을 만나 생활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고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제야 살아가야 할 방법을 깨달았다는 이 총무는 그래서 포천신문과의 인연이 소중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람의 김치 전달을 위해 배추 650포기를 기증할 때도 남편의 흔쾌한 허락이 전제되었고 김장을 담을 때도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기도 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젋소사랑이야기가 연재되는 동안 주변 환경정리는 물론 영전목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이번 연재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주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연재가 끝났다고 글쓰기를 쉬지 말고 계속 글을 써서 정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일상에 파묻혀 위축된 생활에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준 젋소사랑이야기를 위해 여러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한다.

‘열심히 살자’를 좌우명 삼아 복합영농을 추진해온 이 총무는 농업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기타 농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 총무는 포천신문은 지역의 소식을 가장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지역의 매체로 자리잡은 것 같으며 포천신문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물때달 연수의 글을 통해 함께 있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송우리로 이사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 총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돌봐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서 이 총무는 처음에는 타이틀만 주부명예기자이고 친목계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활동해보니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주부의 시각에서 취재해야 할 것이 많아 취재하여 보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2월3일 재경포천시민회 제23회 정기총회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포천인의 밤’

포천출신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가 오는 12월3일 오후6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정기총회 겸 ‘포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의례, 회장인사, 이한동 전 국무총리, 국회의원, 포천시장, 포천시회의회장 등의 축사 순으로 이어질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취임한 이문용(경남신문사 이사대우겸 서울지사장) 회장의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자’는 공약사항 실천 1년 차로 1천700여명의 재경포천시민회 회원을 1만명

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1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100여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포천시민이 돈이 없어서 연구나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 사업의 1단계가 올해 마무리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장학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의지를 다지는 정기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 대통령상 수상



다”며 “앞으로 신문사 발전은 물론 재경포천시민회 활성화로 포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쌀은 우리가 소비해야죠”

영북농협, 미소쌀 팔아주기 캠페인

영북농협이 지역 쌀인 미소쌀 팔기 홍보를 위해 앞장섰다.

영북농협협동조합(조합장 이상용)은 지난 25일 영북면 운전사내 및 산정호수 일원에서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고품질 미소쌀의 인지도 제고 및 쌀소비촉진 분위기확산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적정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기반 유지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영북농협 임직원 및 농업경영인, 농민회, 미소쌀작목회, 영농회, 농가주부모임, 고향

주부모임, 부녀회 및 품물팀 등 60여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영북농협 회의실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어 회원들은 운전사내 및 산정호수 일대에서 미소쌀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북농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우리지역 농업을 생산한 농산물의 소중함과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주)꽃샘종합식품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



이주성
국세청장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이상갑)이 지난 12월31일 국제청장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돼 그동안 성실납세에 대한 국제청의 인정과 향후 3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주)꽃샘종합식품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 크므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한다”고 지정서에서 밝혔다.

(주)꽃샘종합식품은 1985년에 포천에 들어와 1992년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농림부장관 표창과 2000년 서울시 농산물 전시회 우수제품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 표창, 2001년 한국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이상갑 대표이사는 2002년 농림부에서 선정한 우리농업의 미래를 여는 1인(일천인)에 선정되었으며 2004년 3월 성실납세자로 중부국세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2004년 10월 ISO 9001, 140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상갑 대표이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보호를 위해 honest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사모가족봉사단 하반기 워크샵

아사모가족봉사단(회장 정종철)은 지난 26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아사모(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가족봉사단’ 하반기 워크샵을 개최했다.

아사모가족봉사단은 하반기 가족 워크샵을 통해 한해 사업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사업진행중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평가 및 토론해 가족봉사단 운영에 있어 가족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회의를 만들어 제2기 가족봉사단 회원모집과 효과적인 단체운영을 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기획했다.

이번 워크샵은 아사모 가족봉사단의 배상미 씨의 참석식 구연동화, 아사모가족봉사단 김희숙 씨의 레크리에이션, 유머풀러 스타 박인옥 소장의 ‘가족의 소중함’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새집으로 이사했어요”

나눔의 집 입주식 마련

나눔의 집(원장 박찬진 목사)은 지난 24일 내촌면 진목리 나눔의 집에서 나눔의 집 입주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나눔의 집 입주를 자축하고 입주예배를 통해 나눔의 집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입주식은 맹현영 내촌면장 및 마을주민,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1부 입주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의 집 건축에 도움을 준 각계 인사 및 업체 총 16명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입주자를 축하하기 위한 강부제일교회 불리교단과 바리톤이 영광 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나눔의 집은 이번엔 신축된 나눔의 집 입주를 시작으로 2층 증축 등 나눔의 집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편의와 안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은 현재 30명의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11일부터 입주한 건물은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해 각계의 도움으로 지난 10월 말 완공됐다.

문의 031-532-1111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수능수험생들 힘내세요”

자원봉사센터, 관내 수험생에 ‘차’ 봉사

포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문은주)는 수능시험일인 지난 23일 관내 수능능력시험 수험생들의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대를 구성, 커피와 녹차 등을 제공했다.

의정부시 의정부·부용·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호원고, 경민고, 광동고, 상우고 등 8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수능수험생을 위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청사모, 시민안전봉사대, 구호봉사대, 재난봉사대, 포천시 주민자치회, 이재학 전 포천의용소방대장, 부녀소방대 및 포천고 심재성 교사



포천시자원봉사센터는 수능시험일인 지난 23일 관내 수능능력시험 수험생들의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대를 구성, 커피와 녹차 등을 제공했다.